

신생아에게 흔한 질환 ①

매일유업 영양과학연구소

◆구토

신생아는 위가 자루 형태의 어른들과는 달리 병 모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종종 우유나 먹었던 것을 토해 냅니다. 가볍게 몸을 굽히기만 해도 젖이 흘러나오는데 대부분의 경우 아무런 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구토가 너무 잦고 장시간 계속된다면 정상인 발육이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의사에게 가보아야 합니다. 장 폐쇄나 유문협착증, 폐렴, 뇌막염 등의 여부를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기저귀와 피부염

아기의 아랫도리는 늘 배설물의 자극을 받으므로 쉽게 짓무를 수 있습니다. 잘 행귀지지 않은 기저귀에 남아 있는 비누성분도 아기의 피부를 자극합니다.

기저귀로 인한 피부염을 막기 위해서는 기저귀를 자주 갈아주고, 아기용 크림이나 피부발진 치료 및 보호용 파우더를 발라주는 것도 좋습니다. 이미 염증이 생긴 아기라면 하루에 몇번씩은 기저귀를 벗겨내고 공기를 쉼게 해줍니다.

◆발열

38도 이상이면 물수건 또는 얼음베개를 해주고 발을 따뜻하게 합니다. 얼음베개는 마른 목욕수건으로 싸서 어깨가 차지 않게 하고, 어깨도 수건으로 덮어줍니다. 미열이 장시간 계속되거나 아기의 체온이 37.8도 이상이면 의사의 진찰을 받도록 조치합니다.

◆아구창

칸디다 감염에 의한 아구창으로, 출생시 산도감염이나 영양불량, 허약한 아이의 경우에 잘 발생합니다. 증상으로는 우유 찌꺼기 같은 흰 반점이 구강점막이나 혀에 나타납니다. 자연적으로 치유가 되지만 심한 경우에는 병원에서 1% gentian violet, 항진균제 등을 바르거나 양치를 하거나 내복하게 합니다. PPFK

